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 도 자 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5월 5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: 산업부 에너지신산업과 과장 이귀현(044-203-5390), 김덕기 사무관(044-203-5392)

에너지신산업인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지혜를 국제사회와 나눈다.

- CEM산하 전기차이니셔티브 회원국으로 가입하고 정례회의 및 워크숍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전기차 이니셔티브(이하 EVI)*의 신규 회원 가입국으로써 정례회의을 주관하고, 각 국의 정부, 전문가 및 업계 등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. 4.(월) 워크숍을 열었다.

* 전기차 이니셔티브(EVI : Electric Vehicle Initiative)는 전기차 보급 촉진을 위해 청정에너지장관회의(CEM : Clean Energy Ministerial) 산하에 설치된 다자간 정책 포럼(미국, 중국, 일본 등 약 17개국과 IEA 참여)

* '15. 5. 4(월) 13:30~18:00 /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 (405호)

□ 정부는 기후변화대응과 차세대 신산업육성을 위해 작년에 전기차 등 8대 에너지신산업을 선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며, 지난 4월에는 앞으로 3년간의 에너지신산업육성 계획인 '에너지신산업활성화와 핵심기술 개발 전략'을 발표한 바 있다.

<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말씀 요지('15. 1월) >

○ 기후변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. 전기차와 제로에너지빌딩, 친환경 에너지 타운 등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.

□ 이번 EVI회원가입은 우리나라가 전기차산업육성을 위한 국제논의에 본격 참여한 첫 사례로서, 에너지신산업의 핵심인 전기차의 산업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업계들의 이익을 국제사회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.

○ 특히, 워크숍은 전기차의 확산을 위한 세계 각국의 경험과 아이디어를 나누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다.

□ 정양호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환영사를 통해 "전기차는 전세계 에너지 소비의 20%를 차지하는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, 지속가능한 에너지공급을 보장하는 최선의 대안이다." 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 "자동차산업은 전후방 산업파급효과가 크고, 다양한 서비스산업 창출이 용이한 분야로서, 정부는 신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여 자동차산업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." 라고 말했다.

□ 이번 행사는 오전에는 전기차 이니셔티브 회원들이 비공개 정례회의를 하고, 오후 워크샵에서는 각 국에서 전기차 정책 및 사업추진 사례를 소개하고 전략을 논의했다.

○ 정례회의에서는 전기차도시 우수사례, 회원국 공동연구 등 최근 성과를 공유하고, 추진전략과 '15년 협력의제를 논의했다.

○ 워크샵에서는 네덜란드, 스웨덴, 미국, 중국에서 자국의 전기차 정책 및 사례를 소개하고, 우리나라는 전기차 산업 활성화 정책과 전기차 유료충전 사업 및 배터리리스 사업 등 전기차관련 신산업을 발표했다.

□ 한편, 국제에너지기구(IEA)는 이날 발표에서 현재('14년말) 전 세계 전기차 보유 대수는 약 665,000대(총 승용차 판매량의 0.008%)이며, 이중 미국(39%), 일본(16%), 중국(12%)이 약 67%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.

○ 전세계 전기차 판매비중은 약 0.1%이며, 전기차 판매 비중이 1%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미국이라고 소개했다

□ 산업부 관계자는 "청정에너지장관회의(CEM)산하 전기차 이니셔티브(EVI)는 전기차를 선도하는 국가가 대부분 참여하는 국제협의체(전세계 전기차의 95%이상 보유)로서,

○ 이번 회원국 가입을 계기로 국제교류의 기회가 확대되어 국내 전기차 보급확산에 기여하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"고 밝혔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과 이귀현 과장(☎ 044-203-5390), 김덕기 사무관(☎044-203-539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 전기차 이니셔티브 (EVI) 및 워크숍 개최 개요

□ 추진배경

○ 에너지신산업홍보 및 국제 협력체계구축을 위해 '전기차 이니셔티브(EVI)' **정례회의**(오전)**를 주관**하고 EVI와 **워크숍**(오후) 공동 개최

* 제28차 국제 전기차 심포지엄(5.3~6, 킨텍스)과 연계 개최

□ 행사개요

○ **(일시/장소)** '15 .5.4(월) 09:00~18:00/고양 킨텍스 제2전시장(404~406호)

○ **(주최/주관)** CEM · 산업부 / 에너지관리공단 · 에너지경제연구원

○ **(참석대상)** 국내외 약 100여명 (해외 21명, 국내 약 80여명*)

* (국내인사) **정양호**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, **김태영** 에관공 부이사장, **김현제** 에경원 부원장, **김대환** 제주엑스포조직위원장, **비긴스** 박준석 대표 등

○ **(주요내용)** EVI정례회의(404호), 오찬환담(406호), EVI워크숍 (405호)

- **(EVI Meeting)** EVI 최근 성과, 추진 계획 등 공유 (* 비공개회의)
- **(EVI Workshop)** 각국의 사례(네덜란드, 스웨덴, 미국, 중국 / 한국 5개) 등

□ 주요 일정

시 간		주요 내용	비 고
09:00~12:00	(3h)	【Session 1】 EVI대표단 정례회의	404호
12:00~13:30	**(90')**	**○ 해외 참석자 환영 오찬**	**406호**
		【Session 2】 전기차 워크숍	405호
13:30~13:35	(5')	○ 개회사	에관공 부이사장/에경연 부원장
13:35~13:40	**(5')**	**○ 환영사**	**실장님**
13:40~13:55	(15')	○ '15년 국제전기차 전망 (IEA)	Pierpaolo Cazzola(IEA)
13:55~14:55	(60')	○ 각 국의 사례 발표	네덜란드, 스웨덴, 미국, 중국
15:20~16:50 (90분)	**(15')**	**○ 전기차 정책 및 사업 소개**	**산업부 이귀현 과장**
	(15')	○ 제주 전기차 보급현황 및 정책	제주도청 장정호 과장
	(20')	○ 전기 유료충전 사업	한전 이경윤 부장
	(20')	○ 전기차 배터리 리스사업	비긴스 박준석 대표
	(20')	○ 전기차 전용 플랫폼 기술개발	IT엔지니어링 박재건 부사장
16:50~17:40	(50')	○ EVI파트너기관의 견해	AVERE, UNIDO 등
17:40~18:10	(30')	○ '15년 추진계획, 결론 및 요약	-

참고 2 '15년 국제 전기차 전망 (IEA발표자료 요약)

□ 전기차 보급 현황

○ EVI에 가입한 16개국, 7년간의 데이터를 수집·분석하였으며, '13년 발간 이래로 전기차 및 충전인프라 보급이 증가

○ '14년 말 기준 전세계 전기차 보유대수는 약 665천대로 총 승용차 판매량의 0.008% 차지

- 중국(12%), 일본(16%), 미국(39%)은 전기차 점유율 상위 3개국에 해당

○ 전기 승용차 이외에도 전기버스 46,000대, 전기이륜차 235백만대 보급

○ 배터리의 비용은 감소하고 에너지 밀도는 증가하고 있으며, '22년 배터리 비용 100$/kWh, 에너지밀도 400Wh/L를 목표로 함

○ '14년 전세계 전기차 보유대수에서 EVI 가입국*이 차지하는 비중이 95% 이상

* 캐나다, 중국, 덴마크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이탈리아, 일본, 노르웨이, 남아프리카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, 미국, 네덜란드, 포르투갈, 한국

○ '08~'14년기간동안 EVI 가입국의 EV관련 총 지출액은 160억 USD

□ 전기차관련 현황

○ 전세계 전기차 판매비중은 약 0.1%이며, 전기차 판매 비중이 1%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는 네덜란드, 노르웨이, 스웨덴, 미국

○ 수송부문 최종 에너지소비에서 전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%

○ '10년 대비 2050년 수송부문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배를 기록하여 지구온도를 약 6℃ 상승시킬 것으로 전망

○ 에너지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30% 줄여야 2050년까지 온도상승을 2℃ 수준에서 달성 가능

참고 4 해외 각국의 사례발표 내용

□ **(중국)** 중국(상하이) 전기차 실증사업 현황 소개 및 전기차 판매량, 점유율 등 데이터 분석 결과 발표

○ '14년 중국 전기차 생산은 약 8.5만대, '15년 누적생산은 20만대 초과 예상

○ '14년 전기차 판매는 비야디(BYD), 상하이자동차(SAIC), 테슬라 順

○ 전기차 주행 데이터 및 충전시설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연구센터 운영

□ **(네덜란드)** 전력기반차(BEV, PHEV), 충전인프라 보급현황 및 계획, 전기차 정부지원 정책 등 소개

○ 전기승용차 위주 성장으로 5만여대 보급('15.2), 충전소는 공공 1.4만개소 구축('15.3) 및 민간충전소 약 2.8만개소 구축 추정

*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를 연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 중

○ 신규 생산 자동차의 무공해화('35), 모든 운행 자동차의 무공해화('50) 목표*를 설정하였으며,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** 중

* 전력기반차 보급 목표 : ('20) 200,000대 → ('25) 1,000,000대
** 전기차와 스마트 그리드 연계 프로젝트 진행, 테슬라, 비야디 유럽본부 유치, 전기 환경미화차량·전기택시·전기차 카쉐어링 운영

○ 정부는 전기차 보급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, 경제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

* 전기차 충전소 보급 및 관련 산업 지원, 노하우 공유, 자동차 취득세·운행세 공제, 환경부담금 환급, 지자체별 별도 인센티브 제공 등

□ **(스웨덴)** 전기차 정부지원 정책 및 보급 현황 등 소개

○ 화석연료 미사용('30), 화석연료를 제외한 에너지 시스템 구축('50)

○ 전기차 약 7천대 보급('14년 기준), 전체 판매의 1.4% 차지

참고 5 전기차 이니셔티브개요 (EVI: Electricity Vehicle Initiative)

□ **(개요)** 2020년까지 하이브리드차, 연료전지차를 포함한 전기자동차 2천만대 보급목표를 추진하기 위해 CEM 창설과 함께 설립

○ **(참여국 및 참여기관)** 15개 회원국* 및 2개 비회원국** 참여

- 美 UC Davis의 하이브리드·전기차 연구센터, Rocky Mountain Insitute, IEA의 IA-HEV(Hybrid & Electric Vehicle- Implementing Agreement)***가 파트너 기관으로 참여

* 중국, 미국, 스페인, 인도, 독일, 핀란드, 덴마크, 프랑스, 이태리, 일본, 남아공, 스웨덴, 영국 등
** 네덜란드, 포르투갈

□ **그 간 경과**

○ **(성과)** 세계 전기차 현황·전망보고서 발간, 관련정보 수집·공유

- (보고서 발간) 세계 전기차 현황 및 전망을 담은 **Global EV Outlook 발간**('13. 4)

- (정보공유) World EV Cities and Ecosystems 웹포털을 통해 정책담당자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한 허브 구축

* 파트너 기관과의 협력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(EVX:Global Electric Vehicle Insight Exchange)
* EVX를 통해 전기자동차 산업 관련 민관 이해당사자 사이의 정보공유 및 전기자동차 보급 모범사례 배포

- (민-관 라운드테이블 개최) '12. 10월 독일 스투트가르트에서 EVI 회원국 정부 및 민간 제조업체가 참여하는 민-관 라운드테이블 개최,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민-관 협력방안 논의

- (포럼 개최) '11년 중국 상하이 모터쇼 기간 중 제1회 EV Pilot Cities Forum을 개최, 대도시 EV 시범 및 보급사업을 통해 얻은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였으며, '12. 5월 미국 LA에서 2차 회의 개최

참고 6 클린에너지장관회의(CEM:Clean Energy Ministerial) 개요

□ **회의개요**

○ **(목적)** 클린에너지 기술개발과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논의를 위해 스티븐 추(Steven Chu) 美에너지부 장관이 주도하여 발족한 에너지장관회의

○ **(참석대상)** 23개국*, 3개 국제기구(IEA, IPEEC, IRENA)

* 미국, 호주, 브라질, 캐나다, 덴마크, 핀란드, 프랑스, 독일, 인도, 인도네시아, 이탈리아, 일본, 멕시코, 노르웨이, 중국, 한국, 러시아, 남아공, 스페인, 스웨덴, 영국, UAE, EC

○ 연혁 : 1차(미국), 2차(UAE), 3차(영국), 4차(인도), 5차(한국), 6차(멕시코)

○ 논의사항 : 클린에너지보급·에너지효율에 관한 13개 이니셔티브 논의

* 우리나라는 SEAD, GSEP, ISGAN, CCUS, 풍력·태양광 등 5개 이니셔티브 참여중

□ **13개 이니셔티브 주요내용**

분야	이니셔티브	주요 내용	참여국
에너지효율증진	**①초고효율기기** (SEAD)	○TV, 조명 등의 R&D, 인센티브 및 효율기준 설정 등을 통한 초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	**한국**, 美, 日, 中 등 16개국 및 EU
	②건물·산업 에너지 효율 (SGEP)	○대형 건물 및 산업체 에너지 효율 향상 ○철강 등 특정분야 심층연구	**한국**, 美, 印 등 13개국 및 EU
클린에너지보급	③바이오에너지	○바이오에너지 지도 작성 등 정보DB 구축, 원료 및 관련기술 개발 프로젝트 지속 추진	브라질, 이태리, 스웨덴, 덴마크
	④탄소포집·이용·저장 (CCUS)	○민·관 협력 실행그룹을 구성하여 규제, 금융, 정책방향 논의 및 장애요인 극복	**한국**, 美, 日 등 13개국
	⑤수력	○지속적 수력개발을 통한 경제개발과 환경측면 사이의 시너지 촉진	불, 브라질 등 5개국
	⑥태양광·풍력	○글로벌 태양광·풍력 자원지도 구축 ○장기적인 전문인력양성 전략 마련	**한국**, 美, 獨 등 15개국 및 EU
통합	⑦21세기 전력 (21CPP)	○신재생에너지 및 효율정책 보급확대를 통한 현대적 전화작업 추진	美, 덴마크, 독일 등 7개국
	⑧전기차(EVI)	○민·관 공동 시범사업 추진 ○관련 기술, 정보, 경험 및 정책 등 공유	中, 美, 獨 등 13개국, 2개 비회원국 (네덜란드, 포르투갈)
	⑨지속가능도시 (GSCN)	○국제 지속가능도시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CEM 이니셔티브 발전을 위한 정보공유 활성화	中, 덴마크, 스웨덴, UAE, 핀란드 등 5개국
	⑩스마트그리드 (ISGAN)	○정부 고위급 참여 국제협의체(ISGAN) 발족 ○정책·규제, 표준 등 국제협력	**한국**, 美, 日 등 23개국
인적자원	⑪교육 및 역량강화 (C3E)	○차세대 여성리더 클린에너지분야 참여의식 고취 ○실질적 연구경험 제공 등 연구능력 함양	美, 英, 호주 등 9개국
	⑫솔루션센터 (CESC)	○CEM 참여국의 저탄소기술 이용확대를 위한 정책·시책 개발 및 이행 지원	美, 日, UAE 등 11개국
	⑬에너지접근 (Global LEAP)	○전력계통 접근이 불가능한 취약층 지원 기기 개발 및 보급(예: 태양광LED 조명)	美, 이태리, 영국, 일본 등 4개국